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제7차 경기부양책 시행

산업·경제 '청위경제권',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세 유지

사회·복지 市 소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경범죄자 수감 금지 명령을
악용한 범죄 급증

환경·안전 '도심 주거지에서의 닭 사육' 시범사업 연장

도시교통 시민 이동 편의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택시 할인쿠폰
발행

도시계획·주택 지역중기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2022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이수진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이정근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박효택		홍남명
샌디에이고	김민희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시카고	강기향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올랜도	박혜진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하와이	임지연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휴스턴	이경선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에드먼턴	장지훈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토론토	고한나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코로나19에 따른 제7차 경기부양책 시행

말레이시아 / 산업·경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세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해 400억 링깃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번 7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국민 및 기업 지원 등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부양책

- 2020년 발표된 네 번의 경기부양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며, 이어서 4월 6일, 6월 9일, 9월 23일까지 총 4차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
 - 3월 27일 발표한 1차 경기부양책(Prihatin)¹⁾은 2,500억 링깃 규모로 국민복지, 중소기업 등 지원, 국가경제 강화 등이 주요 골자
 - 4월 6일 발표한 2차 경기부양책(Prihatin SMEs)은 100억 링깃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6월 9일 발표한 3차 경기부양책(Penjana)은 350억 링깃 규모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
 - 9월 23일 발표한 4차 경기부양책(Kita Prihatin)은 100억 링깃 규모로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2021년 발표된 세 번의 경기부양책
 - 2021년 1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자 1월 18일 150억 링깃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Permai)을 발표
 - 1월 18일 발표한 5차 경기부양책(Permai)은 150억 링깃 규모로 코로나19 극복, 국민복지 및 내수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
 - 3월 17일 200억 링깃 규모의 6차 경기부양책(Pemerksa)을 발표
 - 6차 경기부양책(Pemerksa)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경제회복,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경제 전환 등으로 이를 위해 20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1) 시기적으로 1차 경기부양책은 2월 27일 모하맛 마하티르 당시 총리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지만, 3월 27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1차 경기부양책 예산이 포함되었기에 이를 1차 경기부양책으로 소개

- 5월 31일 400억 링깃(약 10조 원) 규모의 7차 경기부양책(Pemerkasa Plus)을 발표
 - 7차 경기부양책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면 봉쇄 조치(Movement Control Order 3.0)에 앞서 마련한 지원책
 -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한 의료체계 강화(10억 링깃), 경제 봉쇄로 타격을 입은 국민 지원(330억 링깃), 중소기업 지원 확대(60억 링깃) 등을 주요 골자로 함

7차 경기부양책(Pemerkasa Plus)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한 의료체계 강화 지원책(6개) 마련
 -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 병상 등 치료 병상 확보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및 관리비 지원
 - 코로나19 의료진 14,000명의 계약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
 - 백신 접종량을 일일 8만 도스에서 15만 도스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 마련
 -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쿠알라룸푸르, 슬랑고르, 조호, 페낭) 대상으로 백신 신속 접종을 위한 지원금 마련
 - 백신접종센터(PPV) 확대 설치
- 국민 지원책(6개) 마련
 - 월 가구소득 2,500링깃 이하 가구에 500링깃, 2,501~5,000링깃 가구에 300링깃을 지급하는 국민 지원책(Bantuan Prihatin Rakyat) 시행을 위해 21억 링깃 할당
 - 전면 봉쇄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하위 소득군 B40 그룹 대상 대출금 상환 유예를 승인
 - 버스 및 택시업 종사자의 대출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
 - 전면 봉쇄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5월부터 7월 까지 3개월간 30% 삭감
 -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링깃 할당
 - 고용주가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인적자원개발기금(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²⁾ 면제
- 중소기업 지원책(7개) 마련
 - 기존 중소기업 지원금(Prihatin Special Grant) 1,500링깃에 500링깃 추가 할당
 - 소액 융자 저금리 지원을 위해 15억 링깃 할당
 - 중소기업 경제회복 지원금 20억 링깃 추가 할당
 - 관광업계 운전자, 택시·버스·공유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500링깃의 현금 지급

2) 2021년 기준 48개 업종의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0.5~1%를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기금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

- 호텔, 관광업, 쇼핑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국내 항공사의 전기요금을 7월부터 9월까지 10% 인하
- 주택 매매지원 캠페인(Home Ownership Campaign)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 이 캠페인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9년 처음 시행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말레이시아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부동산 등록세 등 인지세(stamp duty)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 올해 연말까지 차량 판매에 대한 판매용역세(SST)³⁾를 면제 또는 인하
 - 반조립 생산(CKD) 차량은 판매용역세를 100% 면제하고, 해외 수입(CBU) 차량은 판매용역세를 50% 인하

<https://www.astroawani.com/berita-malaysia/pemerkasa-plus-malaysia-mampu-capai-150000-dos-pemberian-vaksin-sehari-300841>

<https://www.facebook.com/tzafrulaziz/photos/pcb.324782215838198/324781209171632>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1/05/694773/pm-unveils-rm40b-pemerkasa-plus-financial-aid-package>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3) 판매용역세(SST; Sales and Services Tax)는 최종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와 용역세로 분류

‘청위경제권’,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세 유지

중국 충칭(重慶)시 외 /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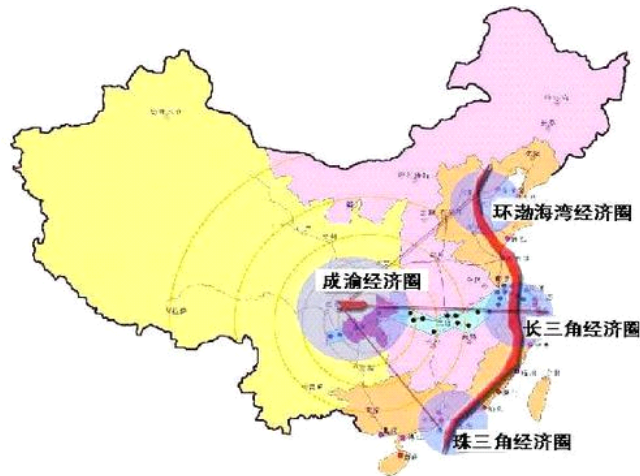
중국 4대 경제권 중 하나인 충칭시와 쓰촨성이 3월 18일과 15일에 각각 ‘2020년 국민경제·사회경제 통계공보(公報)’를 발표. 두 시·성은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청위(成渝)경제권’, 문화적으로 ‘쓰촨문화권’으로 분류. 이번 공보에서는 2020년 충칭시와 쓰촨성의 경제, 산업, 투자, 금융, 인구, 무역 등 주요 분야의 성장 현황 등 성과를 각종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

청위(成渝)경제권의 개요

- 청위경제권은 충칭시와 청두(成都)시를 포함한 쓰촨(四川)성 전체를 포괄
 - 충칭시는 1997년에 직할시로 승격되어 중국 4대 직할시¹⁾ 중 하나가 되었음. 승격 이전에는 쓰촨성에 속해 있었기에 중국인들은 여전히 쓰촨문화권의 일부로 인식
 - ‘청(成)’은 청두시의 약칭이고, ‘위(渝)’는 충칭시의 약칭
 - 청위경제권은 중국 4대 경제권 중 하나로, 중국 내륙지방에서 유일한 핵심 경제권
 - 중국 4대 경제권은 수도권으로 발해만을 끼고 있는 ‘징진지(京津冀)경제권’, 상하이(上海)시와 주변인 ‘장강(長江)삼각주경제권’, 광둥(廣東)성과 홍콩 및 마카오까지 포괄하는 ‘주강(珠江)삼각주경제권’ 그리고 청위경제권을 가리킴
 - 4대 경제권은 중국에서 면적은 20%, 인구는 30%에도 못 미치지만, 전체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
- 청위경제권은 쓰촨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 쓰촨 방언은 중국 서남부를 대표하는 방언으로, 쓰촨성과 충칭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구이저우(貴州)성 및 윈난(雲南)성 방언과 유사
 - 20세기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을 후난(湖南)성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배출
 - 덩샤오핑(鄧小平)은 쓰촨성 광안(廣安)시에서 태어나 충칭시에서 수학했고,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충칭시에서 1950년대 초반 중국 서남지방을 관할하던 행정 부처인 서남국 제1서기로 4년 동안 근무²⁾
 - 인민해방군 10대 원수(元帥) 중 주더(朱德), 류보청(劉伯承), 천이(陳毅) 등 3명이 청위경제권 및 쓰촨문화권 출신

1) 중국 4대 직할시는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톈진(天津)시, 충칭(重慶)시

2) 덩샤오핑은 죽을 때까지 쓰촨 방언의 악센트와 억양이 강한 중국어를 일상생활과 업무 중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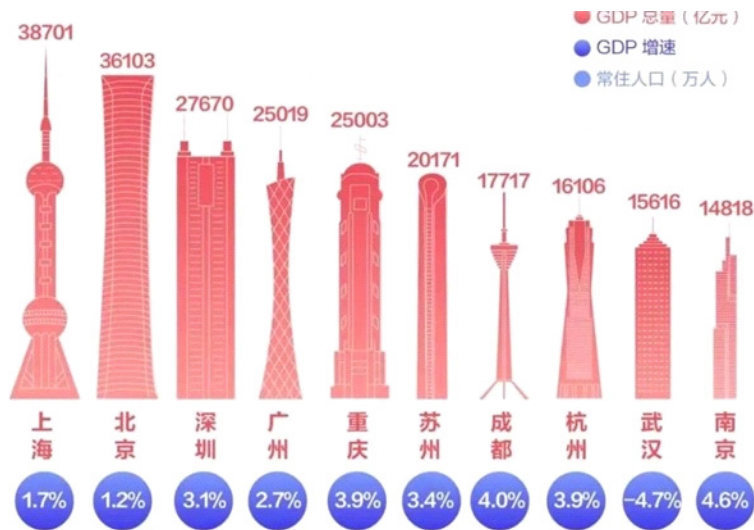


[그림] 중국 4대 경제권 지도(출처: 바이두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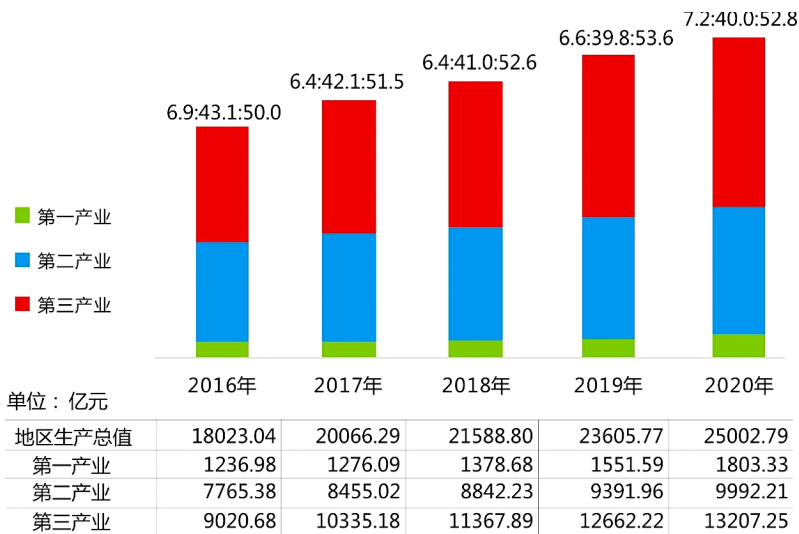
‘2020년 국민경제·사회발전 통계공보’의 주요 내용

- 2020년 충칭市와 쓰촨省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
 - 2020년 충칭市의 GRDP는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2조 5,003억 위안을 달성했고, 쓰촨省의 GRDP는 2019년보다 3.8% 증가한 4조 8,598억 위안을 달성
 - 쓰촨省의 성도(省都)인 청두市의 2020년 GRDP는 전년도보다 4% 증가한 1조 7,717억 위안을 달성
 - 충칭市의 GRDP는 2020년 중국 전체 도시 중 5위, 내륙 도시 중 1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했고, 청두市의 GRDP는 중국 도시 중 7위, 내륙 도시 중 2위를 기록
 - 1위 상하이, 6위 쑤저우(蘇州), 8위 항저우(杭州)는 장강삼각주경제권
 - 2위 베이징은 징진지경제권
 - 3위 선전(深圳), 4위 광저우(廣州)는 주강삼각주경제권임
- 위기상황에서도 제조업이 성장을 이끈 충칭市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차 산업의 총생산액은 2019년보다 4.9% 증가한 9,992억 위안을 달성하면서 성장세를 견인
 - 충칭市는 1960년대부터 마오쩌둥(毛澤東)의 3선 건설정책³⁾에 따라 중국의 핵심 군수공업기지로 발전해왔고, 현재는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철강, 컴퓨터, IT 등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고루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

3) 3선 건설정책은 미국과 소련의 선제 핵 공격에 대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창한 서부지방 건설프로젝트로, 1960년대 중반부터 연해지방(1선)과 중부지방(2선)에 소재했던 핵심 군수기업들을 서부지방(3선)으로 대거 옮기고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



[그림] 2020년 중국 10대 도시 GRDP와 성장률(출처: 21세기 중국 뉴스 데이터)



[그림] 2016~2020년 충칭시의 산업 비중 및 생산액 변화(출처: 충칭시 공보)

- 청두시의 IT산업이 주도한 쓰촨성의 전체 성장세
 - 비메모리 반도체, IT산업 등에서 강점이 있는 청두시는 2차 산업이 2019년보다 4.8% 성장하여 쓰촨성 전체의 2차 산업 성장률 3.8%보다 높음
- 견고한 고정자산투자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 2020년 충칭시는 민간투자 성장률이 1.1%에 불과했고 부동산 개발투자는 -2.0%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정부와 공공부문의 기초시설투자에서 9.6%의 증가율을 달성하여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3.9%의 성장률을 기록

- 2020년 쓰촨省은 부동산개발투자가 11.3%나 급증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고, 1차 산업의 투자도 35.6%나 급증해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9.9%의 성장률을 달성. 다만 제조업의 R&D투자는 0.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여행 지출이 감소하고 예금 규모가 크게 증가
 - 충칭市는 금융기관의 예금 규모가 2019년보다 8.5% 늘어난 4조 2,854억 위안으로 최근 수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 특히 외국 화폐 예금액은 13.1%나 증가한 4조 1,908억 위안을 기록
 - 쓰촨省은 금융기관의 예금 규모가 2019년보다 10.5% 늘어난 9조 350억 위안으로, 역시 최근 수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충칭市는 인구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쓰촨省은 인구가 조금 감소
 - 2020년 충칭市 인구는 3,205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2.6% 증가했으나, 쓰촨省은 8,367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8만 명 감소

청위경제권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 간의 경제협력 현황

- 충칭市에 있어 한국은 3위의 수입 파트너 국가
 - 2020년 충칭市 전체 수입액 2,325억 위안 중 한국은 331억 위안으로 3위를 차지. 1위는 419억 위안의 대만, 2위는 397억 위안의 베트남
 -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와 IT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인데, 이는 대만과 유사.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부품, 의류 등을 주로 수입
 - 2020년 충칭市 전체 수출액은 4,187억 위안으로 1위는 1,029억 위안의 미국, 2위는 430억 위안의 홍콩, 3위는 392억 위안의 독일임
 - 2020년 말까지 충칭市에 투자한 기업 중 세계 500대 기업은 296개사
 - 그 중 한국기업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이고, SK하이닉스는 2020년 2기 공장 확장 건설공사를 시작
- 급증한 쓰촨省의 대외무역 규모
 - 2020년 쓰촨省 전체 수출액은 19.2% 늘어난 4,654억 위안이고, 수입액은 18.8% 증가한 3,427억 위안임
 - 2020년 말까지 쓰촨省에 투자한 기업 중 세계 500대 기업은 364개사이고, 새로이 64개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전체 외국인 진출기업은 1,219개사에 달함

http://www.cq.gov.cn/zjq/sjfb_120853/tjgb/202103/t20210318_9009790.html

<http://www.sc.gov.cn/10462/10464/10465/10574/2021/3/15/199bb4028ba84d5580d3403ad49baf1.shtml>

http://www.cdstats.chengdu.gov.cn/hm/detail_384025.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市 소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네덜란드 로테르담市 / 사회·복지

네덜란드 로테르담市는 市정부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시 감면.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중단과 매출 감소를 장기간 겪고 있는 업체와 종사자를 지원

배경 및 목적

-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식당 및 카페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12월 15일부터는 식료품, 의약품 등을 제외한 비필수상점(옷가게, 생활소품점 등)의 영업을 전면 금지
- 로테르담市는 2020년 3월 네덜란드의 첫 전국 단위 봉쇄령 직후 市 소유 부동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해주는 지원책을 시행
 - 이후 12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였으나,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됨

주요 내용

- 市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요식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방역 단계와 관련 조치에 따라 각 사업장이 영향을 받은 정도를 평가하여 25~50% 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를 감면
 - 코로나19 상황은 임대차보호법 내 ‘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유’에 해당
 - 이에 따라 임대인(市정부)과 임차인(소상공인 혹은 요식업체)의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임대료 감면)
 - 임차인은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자정부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음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함

- 임차인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 혹은 수입에서 3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에게는 市정부가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최대한 많은 임차인을 지원할 예정
-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임대료이며, 추후 연장 여부와 지원자격을 재검토할 계획
 - 이번 지원책으로 약 1천만 유로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충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市의회에서 논의
- 로테르담市는 市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 부동산에도 유사한 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

정책 평가 및 의의

- 소상공인 및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로테르담市의 임대료 감면 조치는 네덜란드에서는 최초
- 참고로, 암스테르담市는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축소된 업종 중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매출 및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삼은 로테르담市와는 다르게 업종별 방역수칙과 봉쇄기간을 감안하여 지원¹⁾

<https://www.rotterdam.nl/werken-leren/gemeentelijk-vastgoed/>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wethouder/touria-meliani/persberichten/huorkorting-50-procent-getroffen/>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1) 미용실, 스포츠센터, 의료시설 등의 업종 관련 방역수칙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경범죄자 수감 금지 명령을 악용한 범죄 급증

미국 하와이주 / 사회·복지

하와이주 수감·교정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범죄자 수감 금지 및 기존 수감자 조기 석방 정책이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이 정책으로 인해 수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묻지마 폭행’과 ‘도난’ 등의 사건이 하와이주에서 연이어 발생. 이에 호놀룰루市 검사장을 해당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올해 4월 하와이주 고등법원에 제출

정책적 배경

- 2020년 8월 코로나19가 하와이주 오아후(Oahu)섬 지역사회 교정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 대법원은 칼리히(kalihi) 감옥의 수감자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경범죄자의 석방을 명령
 - 이에 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지난해 5월 현재 하와이주 공공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총 181명의 수감자와 30명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주지사 행정명령은 수감·교정시설 내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수감·교정시설에서의 구류 또는 징역형 대신 가석방 청문회 제도를 활용해 조기 석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또한 기존 수감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 중 경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조기 석방하는 조치를 시행
 - 하와이주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체포된 경범죄자의 징역 또는 구류 금지 조치를 넘어 징역형을 받고 이미 수감 중인 범죄자의 상당수를 조기 석방하도록 조치
 - 실제로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9월, 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조기 석방을 허용한 바 있음
 - 또한 올해 4월 기준 하와이를 포함한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뉴욕 등 11개 주는 다른 지역에 소재한 수감·교정시설 간 수감자 이송 역시 금지

주요 내용

- 해당 정책은 2021년 4월 현재 미국 4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주지사령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하와이주는 경범죄 사건 연루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 저위험군에 속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한 수감자를 조기 석방 또는 수감·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조치를 시행
 - 조기 석방이 예정된 수감자는 출소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핵산검사에 임해야 하며, 음성 반응 확인서를 지참한 뒤 석방되도록 함
 - 수감자들은 석방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
 - 지난해 6월 하와이주 대법원은 하와이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도소 내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는 해당 의견서에 동의하고, 총 655명의 경범죄자를 조기 석방할 것을 명령
 - 8월 16일 처음 시행된 조기 석방자 명단에는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 중이었던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
 - 8월 17일 하와이주 대법원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들에 대해 집행유예 18개월을 조건으로 석방. 다만 조기 석방되는 중범죄자 명단에 성범죄와 강도, 가족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정책 평가

- 주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를 악용해 폭행을 수반한 경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 경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소 30일의 구류와 1,000달러의 벌금 부과였던 것과는 큰 차이라는 지적이 제기
 - 이에 스티브 알름 호놀룰루 검사장은 “주정부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고 상습 폭행과 절도 등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이들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 판사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지난해 8월 내려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올해 4월 현재 해당 의견을 담은 청원서가 하와이주 고등법원에 전달된 상태

<https://www.kitv.com/story/42501682/supreme-court-orders-prisonjail-inmate-release-due-to-covid19>
<https://www.hawaiinewsnow.com/2020/08/18/court-orders-release-certain-felons-covid-grips-states-largest-jail/>
<https://www.staradvertiser.com/2020/05/01/hawaii-news/hundreds-of-inmates-freed-from-overcrowded-facilities/>
<https://www.staradvertiser.com/2021/03/23/breaking-news/former-honolulu-police-chief-louis-kealoha-allowed-to-delay-prison-term-to-get-covid-vaccine/>
<https://www.civilbeat.org/beat/state-begins-releasing-inmates-to-limit-covid-19-infections/>
<https://ag.hawaii.gov/cpja/files/2013/01/Parole-Decision-Making.pdf>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도심 주거지에서의 닭 사육’ 시범사업 연장

캐나다 토론토시 / 환경·안전

캐나다 토론토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암탉을 반려 동물로 기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나자, 2018년 3월 시작한 ‘도심 닭 사육 3년 시범 사업(Urban Hens TO)’ 기간을 1년 더 연장. 현재 토론토 내 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닭 사육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1년 후 토론토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

정책적 배경

- 도시농업,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 자연친화적 생활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선호가 증가하고, 닭을 직접 길러 신선한 달걀을 생산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토론토의 일부 지역에서 ‘도심 닭 사육 3년 시범사업(Urban Hens TO)’을 시행
 -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토론토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
 - 이는 토론토의 ‘텃밭 가꾸기’, ‘직거래 로컬 장터’, ‘마을 과수원’, ‘마을 정원’ 등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토론토시는 시범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 후 토론토 전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식량 부족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닭 사육 정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시 외곽의 농장에서는 병아리 판매가 50% 이상 증가함

주요 내용

- 토론토시가 2018년 3월부터 시행해 온 ‘도심 닭 사육 시범 프로젝트(Urban Hens TO)’는 토론토 내 4개 지역구에서 진행
 - 4개 지역구는 지역구 5(Ward 5), 지역구 13(Ward 13), 지역구 21(Ward 21), 지역구 32(Ward 32)임
-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반드시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현재 79가구 230마리의 암탉이 등록되어 있음
- 뒷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혹은 타운하우스 거주자만 등록 가능. 임대주택은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
- 아파트 및 콘도 거주자는 참여 불가능
 - 콘도는 아파트와 비슷한 공동주택으로, 건물 내부에 거주자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수영장, 도서관, 헬스장, 영화관, 바비큐장, 파티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건물을 일컬음
- 닭장의 크기와 위치 등 닭 사육에 필요한 기준 시행
 - 닭장의 높이는 2m, 면적은 최대 9.2평, 닭 한 마리당 바닥 면적은 약 0.1평, 울타리가 있는 야외 닭장은 약 0.3평 규모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닭장에는 암탉 수만큼 길이 최소 20cm의 햇대가 있어야 함. 닭은 대부분의 시간을 햇대에서 보내기 때문에 필수임
 - 암탉 수에 맞게 상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밤에 닭장을 잠글 수 있는 지붕과 문이 있어야 함
 - 닭장은 반드시 주택 뒷마당에 있어야 함
 - 또한 市는 다른 건물에서 최소 1m 떨어지고, 이웃의 창문과 문으로부터는 최소 3m 이상 떨어진 곳에 닭장을 설치하기를 권장
 - 市 직원이 닭 사육과 관련된 검사를 요청할 때 닭 사육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가구당 키울 수 있는 암탉을 4마리로 제한
 - 다만, 市는 암탉이 사회성이 매우 발달했다는 것을 감안해 최소 2마리 이상 키울 것을 권장
 - 수탉 사육은 금지되어 있음. 그런데 병아리는 4개월이 지나야 암탉인지 수탉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개월이 지난 닭이어야 함
 - 암탉 사육은 반려동물 혹은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함
 - 생산된 달걀은 반드시 사육자 가정에서 소비해야 함.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줄 수 없음
- 암탉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 부여
 - 암탉을 적절하게 보살피지 않을 경우 학대로 간주하고,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닭은 사육자의 거주지에 있어야 함
 - 닭을 사육하는 사람은 암탉의 건강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 닭장을 제공해야 함

정책 평가

- 시민들이 그동안 닭 사육을 반대한 이유는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었음. 하지만 시범사업 3년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시범 프로젝트 시행 후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며, 신선한 달걀 생산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먹거리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닭 사육에 대한 기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범 프로그램을 1년간 더 연장 시행한 뒤 2022년 3월 최종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

<https://www.toronto.ca/community-people/animals-pets/pets-in-the-city/backyard-hens/>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city-looks-to-extend-backyard-chicken-pilot-project-longer-than-egg-spected-1.5825445>

[https://globalnews.ca/news/4059021/backyard-chickens-hens-pilot-project-toronto/#:~:text=Residents%20in%20some%20parts%20of,%2C%20Ward%2021%20\(St.](https://globalnews.ca/news/4059021/backyard-chickens-hens-pilot-project-toronto/#:~:text=Residents%20in%20some%20parts%20of,%2C%20Ward%2021%20(St.)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시민 이동 편의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택시 할인쿠폰 발행

이탈리아 피렌체시 / 도시교통

피렌체시는 피렌체 택시연합과 공동으로 부온 비아지오(Buon Viaggio)¹⁾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시민들을 위한 택시 이용 할인쿠폰을 발행.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자 하는 목적임

배경 및 목적

- 택시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종
 -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 관광산업의 침체 등의 이유로 택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
 - 택시 운전기사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약 76만 유로를 지원받음
- 외출 제한, 이동 금지 등의 조치로 이동이 필수적인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
 - 시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는 취지

주요 내용

- 부온 비아지오(Buon Viaggio) 쿠폰 이용 방법
 - 5유로짜리 쿠폰 20장으로 구성된 100유로의 할인쿠폰을 발행
 - 택시 이용 금액의 최고 50%까지 쿠폰 적용이 가능하며, 1회 이용 시 최대 20유로 까지 가능
 - 예를 들어, 택시비가 30유로 나왔을 경우 최대 15유로까지 쿠폰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15유로는 이용자가 지불. 택시비가 60유로일 경우 최대 20유로까지 쿠폰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40유로는 이용자가 지불
- 쿠폰 이용 대상
 -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임산부
 - 다양한 이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시민
 - 이동 제한 등의 조치로 병원 출근에 불편함이 있는 의료업계 종사자

1) 부온 비아지오란 '좋은 여행'이라는 뜻

- 대중교통 이동 제한으로 이동이 불편한 대학생 등
- 쿠폰 신청 및 수령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피렌체市와 피렌체 택시연합이 공동으로 개설한 포털 사이트(<https://buoniviaggio.055055.it/>)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과 함께 쿠폰 이용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쿠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
 - 신청 후 이메일로 쿠폰 코드와 안내사항을 받음
 - 쿠폰은 우편으로 수령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피렌체 택시연합에서 우편으로 쿠폰 발송



[사진] 피렌체市와 피렌체 택시연합이 공동 기획한 부온 비아지오 쿠폰

<https://www.comune.fi.it/dalle-redazioni/buoni-viaggio-sconto-su-taxi-ed-ncc>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buoni-viaggio-da-domani-al-le-domande-muoversi-con-lo-sconto-su-taxi-ed-ncc>

<https://buoniviaggio.055055.it/>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지역중기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2022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도시계획·주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도시 회복력에 기초한 사회경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과 8개 주요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2022년 지역개발 계획(안)을 마련. 자카르타는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계획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배경 및 목적

- 지방정부법, 국가개발계획체계법, 국가예산법 등에 따라 자카르타 州정부는 5개년 지역중기개발계획(RPJMD)을 구체화하는 지역개발계획을 매년 수립
 - 지역개발계획은 업무계획(Work Plan)으로도 불리며, 지역경제 프레임워크와 지역 개발 우선순위 및 자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
 - 이번 지역개발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자카르타 州정부의 2018~2022 지역중기개발 계획(RPJMD)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음
- 특히 2022년 지역개발계획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시한 대규모 사회제약 정책과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이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에 반영
 - 전염병 없는 도시, 회복력 높은 도시, 고도의 디지털 도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 등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발굴된 새로운 지역개발 개념
- 현재 2022년 지역개발계획 초안을 공개한 상태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계획회의(mursenbang)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2022년 지역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

- 자카르타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은 ‘도시 회복력에 기초한 사회경제 개선’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딛고, 2021년 약 5%, 2022~23년 연평균 약 6%의 경제성장을 예상
 - 이동증가, 소득향상,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개인 소비 증가 및 회복 예상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로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 총 8개의 2022년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역중기개발계획의 2022년 목표 달성을 지원
 - ① 보건체계 개혁, ② 교육의 질적 개선, ③ 중소기업 강화, ④ 관광산업 강화, ⑤ 투자 유치 확대, ⑥ 사회보장체계 개혁, ⑦ 식량안보, ⑧ 재난회복력 체계 개혁

2022년 전략 이슈	2022년 지역중기개발계획 목표	2022년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
보건개발 질적 개선	인간개발지수(HDI) ²⁾ 81.60 이상	보건체계 개혁 - 도시 보건프로그램 실시 - 보건소 역할 강화 - 보건서비스 접근성 개선 - 병원서비스 질적 개선 - 정보통신기술 이용 최적화 및 보건시스템 디지털화
교육의 질적 개선		교육의 질적 개선 - 경제회복력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 취약가정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한 교육 접근성 개선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률 5.8~6.2% 이상 실업률 10.38% 이하 지니계수 0.399 이하 빈곤율 3.45% 이하	중소기업 강화 - 창업 장려 - 중소기업 디지털화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 관광산업 강화
식량안보 강화		투자 유치 확대 - 투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굿 거버넌스(협치) 강화 사회보장체계 개혁 - 사회복지통합데이터 업데이트로 사회보조 대상자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
식량안보 강화	재난위험지수 ³⁾ 66.33 이하	식량안보 - 도시농업 확대 - 식량 저장(완충재고 - 상품의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재고 확보) - 식량 공급망 및 유통 개선 - 식량 가격 안정 - 안전한 식량
홍수(하천 및 해안 홍수 등) 예측		재난회복력 체계 개혁 - 州정부에서 운영하는 3개의 애플리케이션 (Jakarta SIAP, Jakarta SEHAT, Jakarta TERHUBUNG) 개선

2) UN 개발계획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하여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3) 국가재난관리청(BNPB)이 각 시·군·주의 홍수, 지진, 해일, 산사태, 화산폭발, 산불, 이상기후, 가뭄 등의 재난위험을 평가하는 지수

세계도시동향 제505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6월 2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